

오리온, 베트남서 견과 브랜드 '썬포' 출시

오리온이 베트남에서 신규 견과 브랜드 '썬포'를 내놓았다. 베트남어로 '도시다람쥐'라는 뜻으로, 베트남이 주산지인 캐슈너트와 현지에서 소비가 늘고 있는 아몬드 견과 원물로 선정했다. 캐슈너트와 아몬드를 구워내 고소한 맛을 극대화하고 시럽으로 코팅한 후 시즈닝을 더해 바삭한 식감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뉴 삼성' 가속도

대표이사 전원 교체...가전·모바일도 합쳤다

CE+IM 합친 세트사업 시너지 기대 세트·DS 체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삼성 "이번 인사는 성과주의 특징" 임원인사에도 '뉴 삼성' 영향 있을 듯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큰 폭의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한중희 세트부문장(부회장·왼쪽), 경계현 DS부문장(사장). 사진제공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뉴삼성'이 속도를 더하고 있다. 삼성전자 사장단의 대대적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특히 3개 부문장을 모두 교체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큰 폭의 변화를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바일과 가전사업을 통합하는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연이은 해외 출장길에 올라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는 등 본격적인 경영행보를 시작한 이 부회장이 '뉴 삼성'을 향한 인적 쇄신에도 적극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한중희·경계현 부문장 투톱 체제 구축

삼성전자는 7일 2022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회장 승진 1명, 부회장 승진 2명, 사장 승진 3명, 위촉업무 변경 3명 등 총 9명 규모다. 눈에 띄는 것은 DS(디바이스 솔루션), CE(소비자 가전), IM(IT·모바일) 부문장이 모두 바뀌었다는 점이다. 한중희 CE부문 영상 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이 부회장으로

로 승진하면서, CE와 IM을 통합한 세트 부문장을, 경계현 삼성전기 대표(사장)가 DS부문장을 맡아 '투톱' 체제를 구축했다.

미래를 대비한 도전과 혁신을 이끌 인물을 세트, 반도체 사업 부문장으로 내정하는 세대교체를 통해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구도 속에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삼성전자가 설명하는 이유다. 세트 사업의 경우 통합 리더십 체제를 출범하면서 조직 간 경계를 뛰어넘는 전사 차원의 시너지 창출과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한 부회장은 TV 개발 전문가 출신으로, 2017년부터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을 맡아 TV사업 15년 연속 세계 1위

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 앞으로 세트 사업 전체를 이끄는 수장으로 사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전사 차원의 신사업·신기술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이끌게 된다.

경 사장은 반도체 설계 전문가다. 삼성전자에서 D램설계, 플래시 개발실장, 솔루션 개발실장 등을 역임하며 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주도했다. 2020년부터는 삼성전기 대표를 맡아 역대 최대실적을 견인하는 등 경영역량도 인정받았다. DS부문장으로서 반도체사업의 기술 리더십을 발휘하며 부품 사업 전반의 혁신을 도모할 계획이다.

DS부문장이던 김기남 부회장은 반도체 사업의 역대 최대실적 등 고도성장에 기여한 공을 감안해 회장으로 승진했다. 종합기술원 회장으로 미래기술 개발과 후진양성을 하게 된다.

●성과주의 인사 눈길

정원호 사업지원 테스크포스장(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또 최경식 북미총괄 부사장은 세트 부문 북미총괄 사장으로, 박용인 DS부문 시스템 LSI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은 DS부문 시스템 LSI사업부장(사장)으로, 김수목 법무실 송무팀장(부사장)은 세트 부문 법무실장(사장)으로 승진했다.

그 외에 박학규 DS부문 경영지원실

장(사장)은 세트 부문 경영지원실장으로, 강인엽 DS부문 시스템 LSI사업부장(사장)은 DS부문 미주총괄 사장으로 임무가 변경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사장단 인사는 성과주의가 특징이다"며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극복하는 물론 미래준비에 집중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초일류 100년 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장단 인사는 이 부회장이 구상하는 '뉴삼성'의 행보를 더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 부회장은 최근 경영보폭을 넓히고 있다. 6일에는 중동으로 출장을 떠났다. 주요 국가를 방문해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신시장 개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에도 미국을 찾아 구글과 MS, 버라이즌, 모더나 등 파트너들과 잇따라 만나 미래사업 전략을 논의했다.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의 전조 기지가 될 미국 내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생산라인 건설 부지로 텍사스 테일러시를 최종 선정하기도 했다.

재계는 곧 있을 정기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에서도 이 같은 '뉴삼성'의 방향성에 맞는 뚜렷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티맵모빌리티가 선보인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과 티맵 킷보드. 사진제공 | 티맵모빌리티

킷보드 대여부터 화물차 전용 내비까지 티맵,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확장

UX 전면개편...티맵 주차 통합·렌터카 출시 예정

티맵모빌리티는 모바일 내비게이션 '티맵'의 사용자 경험(UX)을 개편하고, "2022년을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7일 밝혔다. 변화된 티맵은 새로운 이동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사용성을 확장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애플리케이션 상단에 대리운전, 킷보드, 렌터카(예정), 주차(예정) 등 다양한 이동 수단을 제안하고, 사용자 맞춤형 메시지를 통해 개인화 구조의 틀을 마련했다. 하단 탭은 홈 화면과 실시간 인기 급상승 장소, 알려주는 T지급, 운전생활, MY 구조로 변경됐다.

티맵모빌리티는 비운전자들을 위한 서비스도 늘려가고 있다. 이날 출시된 '티맵 킷보드'는 앱 내에서 공유 킷보드를 조회하고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도 출시했다. 별도 결제 및 가입없이 차량 프로필을 화물차로 등록하면 특화된 경로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티맵 주차 통합, 연구소 항목 신설, 렌터카 출시 등이 예정돼 있다.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는 "티맵의 강점인 운전자 서비스에 더해 비운전자 중심의 대중교통, 셔틀 등 서비스 경험을 확장하며 최적의 이동을 제안하는 혁신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 회장으로 승진...증권사 전문경영인 최초

25년 동안 투자전문그룹 발전 기여 전문 경영인체제로 독립경영 강화



최현만 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이 6일 회장으로 승진했다.

최 신입 회장은 미래에셋그룹 창업멤버로 합류한 후 25년 동안 미래에셋그룹을 독립 투자전문그룹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에 금융투자업계 최초로 전문경영인 회장으로 승진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최 회장은 미래에셋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증권, 운용, 생명, 캐피탈 등의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하며 그룹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 1999년 12월 자본금 500억 원에 설립된 미래에셋증권은 약 20년 만에 200배 성장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됐다. 국내 자본시장을 넘어 세계 자본시장에서 글로벌 투자은행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최 회장은 2016년 12월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의 통합을 진두지휘했고, 이후 회사는 금융투자업계 최초로 고객예탁자산 400조 원, 2년 연속 영업이익 1조 원, 자기자본 10조 원을 달성하는 등 진격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우증권 인수 시 목표표 제시한 영업이익 1조 원, 자기자본 10조 원 시대를 연 것에 더욱 의의가 있다. 또 올해 2분기 연금자산과 해외주식 자산 모두 20조 원을 돌파하는 등 호재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승진 인사는 전문 경영자들이 회사 이끌어 가는 역동적인 문화를 가진

미래에셋을 만들겠다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미래에셋증권뿐 아니라 미래에셋그룹 각 계열사 또한 향후 전문경영인 출신 회장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회사 측은 "미래에셋그룹은 계열사별로 전문경영인체제를 구축해 독립경영을 강화하고 있다"며 "고객과 주주 가치를 우선에 둔 책임경영을 통해 글로벌 사업환경 변화에 신속, 유연하게 대응하며 글로벌 투자은행과 경쟁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LG전자, 스탠바이미에 카카오펀트 론칭

LG전자는 신개념 라이프스타일 스크린 'LG 스탠바이미'(사진)에 카카오펀트 인터페이스의 웹툰 플랫폼 카카오펀트를 론칭했다. 별도 다운로드없이 홈 화면에 있는 카카오펀트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TV 운영체제 기반 제품 가운데 카카오펀트 앱을 직접 탑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LG 스탠바이미가 처음이다. 이용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것처럼 27인치 화면을 터치하거나 쓸어 넘기며 웹툰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LG 스탠바이미는 화면을 세로로 돌리는 등 시청 자세에 맞춰 화면 위치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 세로 화면에 최적화된 웹툰 감상에도 제격이다.

현대건설, KIST와 스마트 건설 환경 업무협약

친환경 에너지기술도 공동연구

현대건설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손잡고 스마트 건설 환경 구축 및 친환경 에너지 기술 활성화에 나선다.

7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현대건설 운영진 사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윤석진 원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개발 기술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건설관리 자동화 및 디지털 트윈 환경 구축 ▲건설시공 및 미래주거 서비스 자동화 로봇

기술 ▲수소에너지 기반 기술 ▲친환경 기반 기술 분야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해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2021 현대건설 기술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수상기술인 '복합촉매를 이용한 질소저감 수처리 기술'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연구로 진행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복합촉매 소재의 개발 및 모듈화, 현대건설이 복합촉매를 활용한 처리공정 개발 및 현장 적용성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김도훈 기자 dohoney@donga.com



현대건설 운영진 사장(오른쪽에서 3번째)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윤석진 원장(왼쪽에서 3번째)이 업무협약 체결을 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현대건설

엘라스틴 '프로폴리테라 헤어스컨트롤' 출시



LG생활건강의 헤어케어 브랜드 엘라스틴이 '프로폴리테라 헤어스컨트롤'(사진)을 선보였다. 바이오 프로틴 시스템을 적용해 기존 탈모 샴푸에서 느낄 수 없었던 부드러운 사용감이 특징이다. 탈모와 머릿결을 동시에 케어하고자 하는 2030세대 및 긴머리 여성 소비자의 니즈 해결에 중점을 뒀다. 모발 타입에 따라 푸석한 모발을 위한 고영양 샴푸, 고영양 앰플 트리트리먼트, 힘없는 모발을 위한 볼륨 샴푸, 볼륨 트리트리먼트 등 총 4종으로 구성했다.

권민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